

# 목포 모던타임즈 역사문화지구 조성 탄력

### 근대유산 밀집 만호·유달동 일대 11만4038㎡ 문화재 등록 도시재생 연계 국비 등 300억원 투입 내년부터 5년간 추진

목포시가 추진 중인 '목포 모던타임즈 역사문화지구 조성' 사업이 정부 국경과제인 역사문화자원 재생 지원과 부합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목포시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특히 지금까지 점(點) 위주로 등록돼 왔던 문화재 지정 범위가 선(線)과 면(面) 단위로 확대된 이후, 건축물이 아닌 특정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 문화재로 등록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대상지는 1897년 목포개항이후 조성된 근대 계획도시로 격자형 가로망을 따라 옛 일본 영사관과 동양척식회사, 일본인 소학교 강당 등 문화재 건물과 문화재로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이 밀집된 곳이다. 면적은 총 11만4038㎡다.

이 곳에는 앞으로 문화재 보수·관리 등을 위해 국비 200억원 등 모두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역사문화지구 조성 사업은 '근대건축자산+근대역사문화+도시재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핵심 골자다.

이번 사업은 일본소학교를 비롯해 옛 동양척식회사 건물과 옛 일본영사관, 목포진과 해관부지, 갑자옥 사거리, 화신백화점

과 오거리 등 1개 축 6개 거점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6개 거점 내에는 목포진,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 옛 심상소학교 강당 등 6개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근대 건축자산은 덕전양행 사택지, 갑자옥 모자점, 목포화신 연쇄점, 목포 부립병원 가옥, 일본식 다다미 방 등 16개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유달초등학교(일본인 소학교) 입구에 위치한 일본식 민가(현 샘터문구사)는 다다미방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등록 문화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또 국내에 유일한 일본인 기독교회 건물(1922년 준공)과 하의도 농민들의 토지를 수탁 관리하던 '덕전미질'의 덕전양행 사택지, 근대 항구도시의 상징인 목포해관(현재의 세관) 등도 관심대상이다.

목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문화재청 현지 실사 때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며 "투자도 투자이지만 정부 지원금은 원래 건물매입 비용으로 사용이 불가하지만 매입비로 집행이 가능하고 앞으로 문화재청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시행되며 매년 20~50억원이 지원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유달동과 만호동 일대. 근대 계획도시로 격자형 가로망을 따라 옛 일본 영사관과 동양척식회사, 일본인 소학교 강당 등 문화재 건물과 문화재로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이 밀집된 곳이다.



유달초등학교(일본인 소학교) 입구에 위치한 일본식 민가(현 샘터문구사)는 다다미방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등록 문화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목포시 제공>

## 목포대, 국립대 육성사업 평가 최우수 등급

### 5년간 100억원 지원 받아

목포대학교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교육부 국립대학 육성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A)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대학규모에 따른 포물러 지원금과 이번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최우수 등급(A) 선정 지원금,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인센티브 등을 합해 올해 교육부로부터 약 17억원의 사업비를 포함한 5년간 약 1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이 올해 확대 개편된 사업으로 향후 5년 동안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경과제와 연계한 국립대 고유의 역량 강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서는 평가를 통해 일부 국립대(18개교)만 선정해 지원했으나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전체 국립대를 지원하되 대학규모를 반영한 포물러 수식에 따라 배분된 일반사업비와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차등 사업비를 합해 국립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목포대는 지난해에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선정됐으며 올해 6월 발표된 기본 역량진단 평가에서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정원감축 대상 제외와 2021년까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어 이번 최우수 등급 선정으로 대학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됐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목포 시내버스 감축 운행...1개 노선은 폐지

### 개정된 근로기준법 따라

### 21개 노선 144대만 투입

목포 시내버스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축 운행된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당초 22개 노선에 165대가 운행됐으나 지난 1일부터 21개 노선에 144대만 투입돼 21대가 감축됐다.

특히 22개 노선 중 10개 노선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11개 노선은 축소 운행된다. 또 119년 해남 화원 노선은 폐지됐다.

이는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주당 72시간까지 운전하던 기존 근무 관행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버스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수준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 4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운전기사 구인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신규 채용까지 평균 1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통한 격일제 근무를 실시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버스 운행 감축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시내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하는 등 탄력배차제를 시행하고 운전기사가 확보되는 즉시 버스 운행대수를 늘려 현행 수준으로 회복할 방침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도서지역 7개 항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 목포해수청, 내년 상반기까지

낙후된 도서지역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국경과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소규모 항포구 선착장을 정비해 이용객 안전과 도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 166억원을 투입해 전국 34개소를 정비완료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86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평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열악한 도서지역의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과 함께 수변공간도 함께 조성해 관광객과 도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도서주인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국경과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소규모 항포구 선착장을 정비해 이용객 안전과 도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 166억원을 투입해 전국 34개소를 정비완료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86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평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열악한 도서지역의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과 함께 수변공간도 함께 조성해 관광객과 도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도서주인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2000t급 어업지도선 진수...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2000t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5호를 지난 7일 해남 대항조선에서 진수식을 가졌다.

무궁화35호는 길이 90.0m, 너비 14.0m, 깊이 7.4m에 엔진출력 2920kW 2기를 장착 최대속력 18노트(시속 33km/h)로 항해를 할 수 있으며 최첨단항해·통신장비를 탑재하고 추가 연료수급 없이 원양항해 8000해리(거리 약1만4800km)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속단정 3척(14급 1척, 8급 2척)과 110m 이상 분사되는 방수 2조, 원격의료화상장비가 탑재돼 있으며 헬기 이·착륙도 가능하다.

무궁화35호는 총 1890억원을 투입해 계획 건조되는 6척의 지도선 중 첫 번째 진수하는 선박이며 의장작업과 시운전



지난 7일 해남 대항조선에서 2000t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인 무궁화35호가 진수식을 가졌다.

등을 거쳐 10월 말에 서해어업관리단에 인도될 예정이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대한조선에서 건조하고 있는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2척은 헬기 착륙장 및 원격의료화상장비가 탑재되어 우리어민 및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11월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추가 배차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사랑의 섬' 외달도 해수욕장·해수욕장 개장

목포 '사랑의 섬' 외달도 해수욕장과 소요도는 환경부 지정 자연생태 우수마을, 국토해양부 우수 해수욕장(2009-201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섬 중 섬 섬(2017)으로 선정되는 등 피서지로서 손색이 없다.

목포시는 개장에 맞춰 해수욕장 바닥 매트 교체, 대형 그늘막 정비, 해수공급 시설 정비, 샤워장 및 각종시설 정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등을 마쳤다.

또 해안산책 데크와 해수욕장 주변에 오아·고추 등 채소를 식재해 피서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목포에서 여객선으로 50분(6km) 정도

소요되는 외달도는 환경부 지정 자연생태 우수마을, 국토해양부 우수 해수욕장(2009-201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섬 중 섬 섬(2017)으로 선정되는 등 피서지로서 손색이 없다.

목포시 관계자는 "외달도를 찾는 피서객들을 위해 주말에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진다"면서 "다도해 청정해역이 주는 아늑한 속에서 전복과 춘돔 등 보양식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선배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동배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배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배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뽁뽁~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